

한화생명 상속연구소

THE WEALTH GUIDE

2026 Vol.2



자산 이전

3040 자산가의 상속·증여 트렌드



한화생명

3040 자산가의 상속·증여 트렌드

한화생명 박지빈 연구원

jibin@hanwha.com

(작성일 : 2026.1.31)

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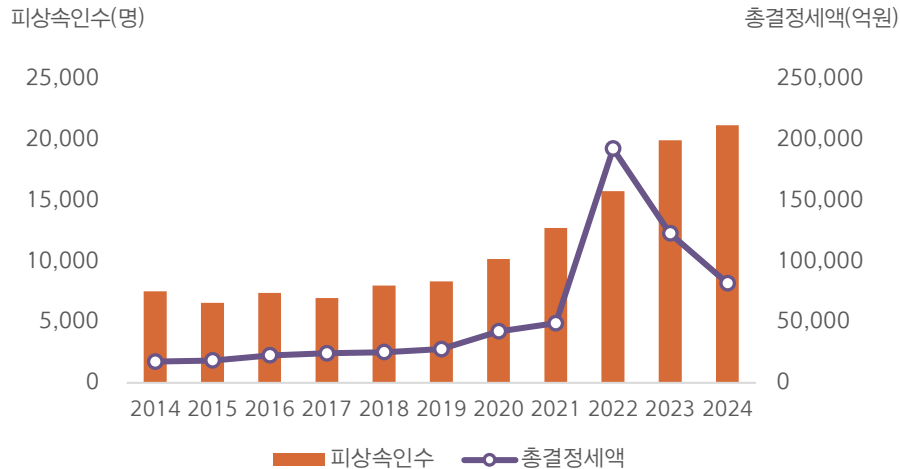
- * 본 자료는 상속연구소의 HNW 인사이트 보고서 ‘Journey of Wealth 2025’의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.

- 자산 이전 실행과 설계의 중심에 있는 3040 HNW(High Net Worth, 고액자산가)의 상속·증여 트렌드를 살펴봄.
- 3040 HNW는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 및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, 유기정기금 증여 등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의 효율을 극대화함.
- 3040세대 자산가들이 보여주는 상속·증여 트렌드는 다음 세대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의 설계에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음.

모두의 과제가 된 ‘자산 이전’

-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,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024년 기준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섬(21,193명). 이는 2020년(10,181명)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.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는 2024년 약 1만 5천 건으로, 2020년 대비 40% 이상 증가함.
- 이러한 변화는 **상속과 증여가 누구나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보편적인 과제**가 되었음을 보여줌.

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 현황



*자료: 국세통계연보

3040 HNW의 부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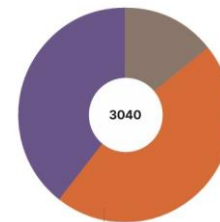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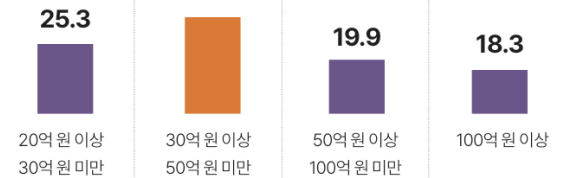
- 상속연구소에서는 **자산 이전 실행·설계의 중심에 있는 3040 HNW(High Net Worth, 고액자산가)의 상속·증여 트렌드**를 살펴봄.
- 조사에 참여한 3040 HNW는 평균 101.7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, 자산 구성은 부동산(46.2%), 금융자산(39.4%), 기타자산(14.4%) 순이었음.

3040 HNW의 자산 현황

[Base: 3040(n=597)]

평균 연령: 42세

평균 자산: 101.7억



부동산
46.2%

● 금융자산	39.4%
● 금, 예술품 등 기타자산	14.4%

3040 HNW의 부의 축적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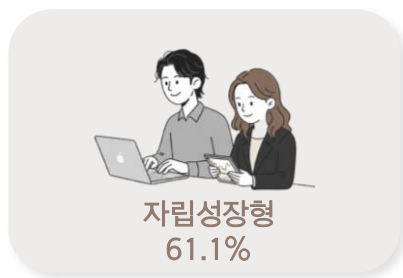
- 설문에 참여한 3040 HNW들은 부의 축적 배경에 따라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‘자산승계형(38.9%)’ 과 본인의 노력으로 부를 일군 ‘자립성장형(61.1%)’ 으로 분류됨.
- 자산승계형의 경우 가업 유무가 절반씩 나뉘는 한편, 자립성장형은 주식·코인 등 금융투자(27.9%)와 전문직 기반의 소득(25.5%)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자산을 축적해온 특징을 보임.

3040 HNW의 부의 축적 배경

[Base: 3040(n=597)]



가업 없음	47.0%
가업 있음	53.0%
가업 승계형	57.0%
가업 미승계형	43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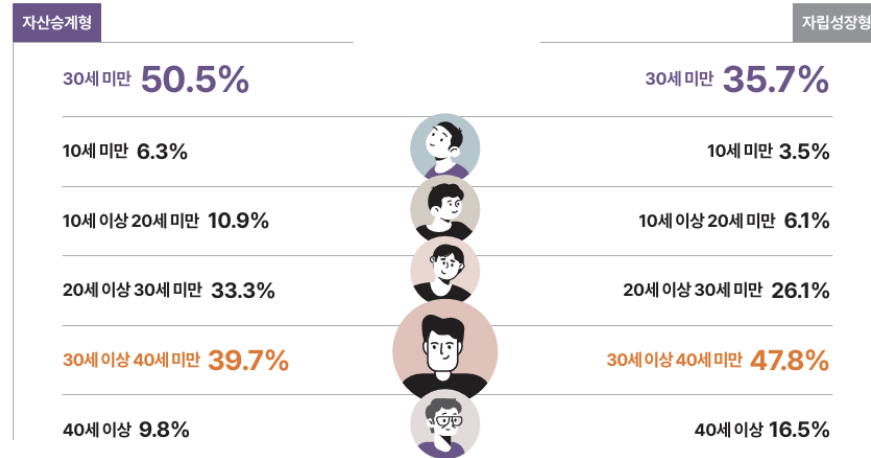
- 주식·코인 등 금융투자 성공 27.9%
- 직장·전문직 기반 자산 축적 25.5%
- 부동산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 23.8%

3040 HNW의 상속·증여 받은 경험

- 3040 HNW의 **절반 가량(48.4%)**이 이미 부모 세대의 자산을 물려받은 **경험이 있는 것**으로 나타남.
- 특히 자산 축적 배경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두드러짐. 30세 이전에 처음으로 상속·증여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산승계형은 50.5%인 반면, 자립성장형은 35.7% 수준으로 **자산승계형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자산 이전을 시작**

3040 HNW의 상속·증여 받은 경험

[Base: 3040(n=597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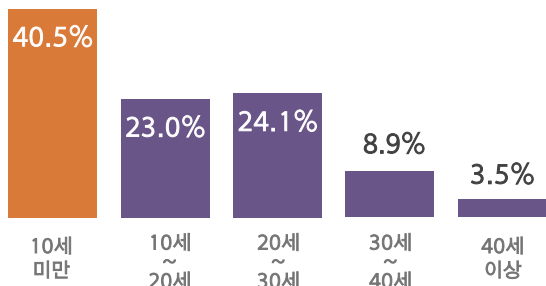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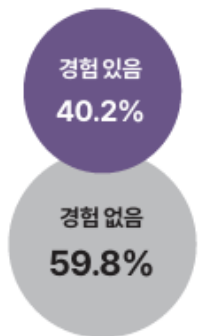
3040 HNW의 자녀 조기증여 트렌드

- 3040세대 자산가들은 **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 및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는 경향**을 보여줌.
- 3040 HNW 중 자녀에게 이미 사전 증여를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0.2%였음.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자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로는 40.5%가 **'10세 미만'** 을 꼽아, 자녀가 어릴 때 부터 미리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조기 증여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음.

3040 HNW의 조기증여 경험 및 선호 시기

[Base: 3040 자녀 있음(n=487)]

[Base: 3040 유자녀, 증여 의향 있음(n=427)]



- 3040 세대의 조기 증여 트렌드는 이들이 선호하는 자산 이전 방식과 자산 유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.
- 3040 HNW는 **'10년 주기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 증여'(59.3%)를 자산 이전 방식으로 가장 선호**했는데, 이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장기적으로 이전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됨.
- 한편, 자녀에게 **'금융투자상품'(68.1%)을 증여**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날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함. '예·적금 등 현금자산'(63.7%)과 '부동산'(45.7%)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.

선호하는 자산 이전 방식

[Base: 3040 (n=597), 복수 응답, 주요 응답만 제시]



59.3% 10년 주기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 증여

금융자산(주식 등) 가치 하락 시 사전 증여	36.5%
가치 상승 예상되는 부동산 증여, 지분 분할 등	34.7%
보험 활용 비과세 혜택·상속세 재원 마련	20.4%
별로로 준비하고 있지 않음	10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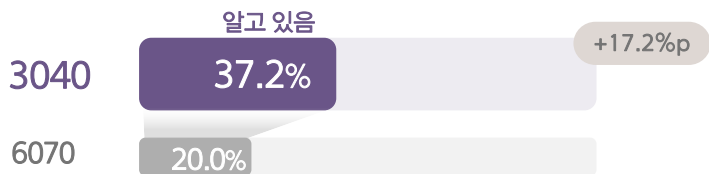
유기정기금 증여를 통한 스마트한 절세

- 조기 증여를 결정한 3040세대 자산가들은 ‘유기정기금 증여 신고’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절세 효율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있음.
- 3040세대의 37.2%가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제도를 이미 알고 있으며, 46.2%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조사에 참여한 6070세대 대비 높은 인지 및 활용 의향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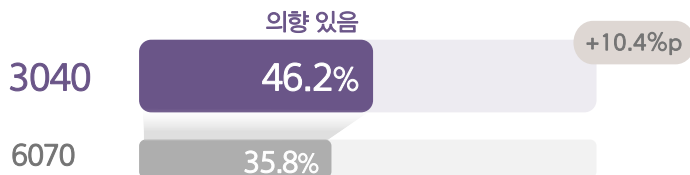
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인지 및 활용 의향

[Base: 3040(n=597)]

✓ 인지 여부



✓ 활용 의향



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제도

- 자녀 등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, 한번만 신고하며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(연 3%)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는 방식
-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자녀에게 입금되는 원금보다 세법상 증여가액이 낮게 평가되어, 인적 공제 한도(미성년자 2,000만 원, 성인 5,000만 원) 내에서 실제 원금 대비 약 16% 이상 많은 자산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음.

구분	일시금 증여	유기정기금 증여
증여 형태	2,000만 원 일시 증여	10년간 매달 19만 원 증여 (연 3% 할인 적용)
실제 자녀가 받는 원금	2,000만 원	2,280만 원

- 구체적으로 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단위로 계획시, 연령별 공제 한도에 맞춰 월 납입액(미성년 시기 약 19만 원, 성인 시기 약 47만 원)을 설정하여 증여세 0원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원금을 마련해줄 수 있음.
- 이렇게 마련된 자산을 조기에 자녀 명의의 펀드나 ETF 등 수익형 자산에 투자할 경우,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, 조기 신고하여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자녀의 미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음.

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준비하는 가족 안전망

-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전달하려는 **자산 이전의 안정성**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. 3040세대의 42.7%가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, 활용 의향이 있는 경우가 39.3%로 나타남.

보험금청구권 신탁

본인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관리하며, 미리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자녀·부모·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,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면 사망보험금을 자녀의 성장과 생애 이벤트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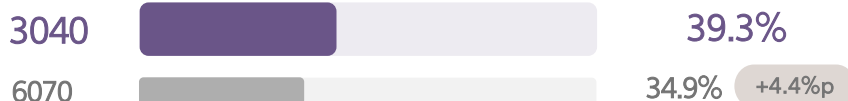
보험금청구권 신탁 인지 및 활용 의향

[Base: 3040(n=597)]

| 인지 상태



| 활용 의향



3040 HNW의 자산 이전 전략, 미래 설계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



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,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식으로 일부 증여를 진행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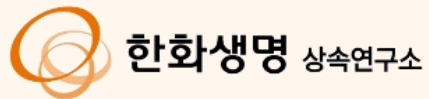
- 40대 남성 자산가 -



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고 세금 부담도 크잖아요. 길게 보고 미국 주식을 지금부터 꾸준히 사주려고요.

- 40대 남성 자산가 -

- 3040 HNW의 자산 이전은 '얼마나 주느냐'의 고민에서 '어떤 방식으로, 언제부터 설계하느냐'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음.
-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 환경 속에서 3040세대 자산가들이 보여주는 상속·증여 트렌드는 다음 세대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의 설계에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음.



필수 안내사항

-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-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(주)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한화생명보험(주)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(주)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(주)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